

메타버스 · XR 전문가 특강

전주시, 'XR 온다(ONDA) 세미나' 개최... 이주영 원더조이 대표 특강 영화 '승리호' · BTS 월드투어 콘텐츠 제작 참여 전문가 초청 강연 진행

전주시가 최근 국내외 IT 트렌드 중 하나인 메타버스와 XR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을 연다. 영화 '승리호'와 BTS 월드투어의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전달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29일 XR 기반의 메타버스와 실감콘텐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2021년 XR 온다(ONDA)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의 가상융합경제발전전략에 맞춰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열리는 '온다 세미나'는 지난날 24일 첫 강연을 시작으로 오는 29일과 다음 달 28일, 10월 7일 등 4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XR 분야 기술과 산업을 이끌고 있는 최고 전문가가 초청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지역 ICT 기업 종사자와 예비 창업자를 포함해 누구나 강연에 참여 가능하다.

오는 29일 열리는 세미나에는 국내 VR 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맡고 있는 이주영 원더조이 대표가 참여해 'XR 기술이 선도하는 콘텐츠의 변화'를 주제로 미디어 산업분야에 대한 특강에 나선다.

다음 달 28일에는 영화 '승리호'의 CG를 제작한 기업인 텍스터 스튜디오의 관계자가 초청돼 '메타버스 및 버추얼 스튜디오'를 주제로, 10월 7일에는 BTS 월드투어 AR 콘텐츠를 제작

한 김영진 디스가이즈 한국지사장이 XR 산업 성공 사례 및 비전에 대해 강연을 펼친다.

이번 온다 세미나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jca.or.kr) 또는 온다 세미나 관련 사이트(spacew.com/ondaseminar)를 참고하거나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063-281-4172~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메타버스는 가상을 뜻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하며, XR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포괄하는 가상융합기술을 말한다.

/김윤상 기자

'놀이터도시 전주 2차 포럼' 29일 개최

전주시가 아이들이 맘껏 떠돌고 뛰놀 수 있는 놀이터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아동 전문가, 초등학생들과 머리를 맞댄다.

시는 오는 29일 야호학교에서 놀이 전문가와 아동, 마을놀이공동체,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 놀이터도시 전주 2차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 2번째 열리는 놀이터도시 전주 포럼은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성장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포럼에서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는 '아동기 놀이의 가치와 놀이환경 조성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김병희 학산중합사회복

지관 모두학교 교장과 이승일 전북도 교육청 정책공보관은 각각 '함께 놀아 단단한 아이들'과 '왜 우리는 아이들 놀이에 집중하는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또 서곡초등학교 문경준, 김기운 학생은 '우리 동네 골목길을 우리들에게 돌려주세요'를, 만성초등학교 심재운 학생은 '학교에서 우리들에게 놀이시간을 주세요'를, 장동초등학교 송도협 학생은 '우리들이 놀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를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어 김순규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은영 전주시의 회 행정위원장과 선홍진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 수석부회장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이날 포럼은 '전주시 라이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5월에도 '놀이터도시 전주, 놀이의 다양성으로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놀이터도시 전주 1차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 장애 아동이 이용 가능한 놀이 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시는 최근 노송광장에 바구니그네를 추가로 설치했으며, 덕진술내어린이공원의 경우 장애아동이 이용 가능한 통합놀이터로 조성 중에 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놀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아이들에게 학교와 지역사회가 맘껏 떠돌고 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는 동시에 놀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면서 가장 행복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는 놀이터도시 전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청 · 완산 · 덕진구청에 '스마트 업무안내 시스템' 구축

전주시청과 완산·덕진구청 로비에도 백화점처럼 층별 구조와 부서 위치, 직원 이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키오스크가 생긴다.

전주시는 디지털 전환 움직임에 맞춰 전주시청과 완산·덕진구청에 민원인들이 업무 및 직원을 검색할 수 있는 '스마트 업무안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스마트 업무안내 시스템은 안내데스크 직원과 접촉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처럼 화면을 터치함으로써 민원인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 시스템에서는 층별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청사 배치도와 홍보 영상, 직원 근무처, 부서별 직원의 업무와 이름, 전화번호까지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시는 이 시스템을 26일 시청 로비에 설치해 시범 운영하고, 28일에는 양 구청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향후

시는 시민들의 반응에 따라 사업소 등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스마트 업무안내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직원들의 인사 이동 시에도 연락처나 담당 업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는 26일 동문길600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최형열 동문상인회장, 장우석 예술인 대표, 염기정, 장필문 상생가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문예술거리 활성화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침체된 동문예술거리에 활력 불어넣는다

전주시, 동문거리 상인·예술인 등과 '동문예술거리 활성화 상생협약식' 가져

전주시가 침체된 동문예술거리를 살리기 위해 동문거리에는 상인, 예술인들과 손을 맞잡았다. 동문거리 점포를 활용한 예술작품 전시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시는 26일 동문길600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최형열 동문상인회장, 장우석 예술인 대표, 염기정, 장필문 상생가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문예술거리 활성화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은 동문거리 점포 10곳

에서 지역예술인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우리가게 예술수장고' 프로젝트의 시작과 발맞춰 동문예술거리가 문화예술의 중심지로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우리가게 예술수장고' 프로젝트로 오는 9월까지 ▲정동유리샷슈 ▲(주)금양 ▲대웅상회 ▲태양정육점 ▲해레나플라워 등 빈 점포 5곳과 ▲한가네서점 ▲창작소극장 ▲동문창창 ▲스타커피 ▲소셜 등 현재 영업 중인 점포 5곳에서 한국화,

서양화, 판화, 조형 등 예술인 20명의 186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시는 행정과 예술가, 상인이 협업해 이뤄진 이번 전시회가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의 전시·판매 기회를 제공하고, 침체돼 있는 동문거리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향후에도 지역 소상공인들이 예술작가들의 작품을 대여, 판매, 전시하는 아트마케팅을 확장시켜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 활동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응 점검

전주시,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서 3단계 일괄 상향에 긴급 확대 비상간부회의 가져

최근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까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4차 유행이 시작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25일 대통령이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격상하자 전주시가 이에 따른 대응을 논의했다.

전주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행중인 상태에서 정부가 비수도권 3단계 발표를 하자 곧바로 휴일인 지난 25일 오후 5시에 전주시장 주재하에 전체 실국장들이 참석한 긴급 확대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코로나19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대응 점검을

했다.

이날 확대 비상 간부회의에서 김승수 시장은 "지금은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이 위기에 총력체제로 대응해야 할 때"라며 "한옥마을과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 위험지역과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을 엄중하게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시 주요 변경 사항은 ▲모임 4명까지 제한 ▲행사, 집회는 50인 미만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노래연습장 22시 이후 운

영 제한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목욕장업과 방문판매 홍보관, 실내체육시설 중 수영장도 22시 이후 운영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10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제한 ▲종교시설 수용인원 20%만 참여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시는 본청 직원과 구청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2주간 연장 운영할 예정이며, 점검결과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윈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운영중단 10일 또는 과태료(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를 지속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